



고전의 울림…시간을 넘어 광주에 닿다



광주문학관은 오는 12월까지 문인들의 문장을 모티브로 한 기획전 ‘시간을 넘어 나에게 닿은 울림’을 펼친다. 빛·소리·영상 등 콘텐츠로 구현한 남도 문인들.

광주문학관, 12월까지 기획전
‘시간을 넘어 나에게 닿은 울림’
김현승·이수북·문병란 등 작품
빛·영상·사운드 결합 콘텐츠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작품을 고전이라 한다. 고전이 지닌 강력한 울림은 사실 문장의 힘이다. 명문은 세대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울림을 선사한다.

예향 광주의 정체성은 문향(文鄕)이다. 기라성 같은 문인들을 배출했고 그 문인들의 문학작품이 오늘의 광주와 남도 문화를 일군 토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림과 빛을 주는 문장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구 각화동 시화마을에 있는 광주문학관 전시실. 이곳에선 ‘시간을 넘어 나에게 닿은 울림’(오는 12월까지)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만날 수 있다.

문인들의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줄기 빛처럼 흘러 가슴으로 스며든다. 타자기와 펜촉의 리듬, 원고지라는 물성 등이 빛과 영상, 사운드와 결합한

콘텐츠는 시선을 압도한다.

김현승, 김남주, 윤삼하, 이수북, 조태일, 고정희, 문병란, 박흥 등 시인들의 작품에서 발췌한 작품을 만나는 것은 덤이다. 오래 전에 읽었던 또는 기억 속에 저장돼 있던 문인들의 문장을 전시실에서 맛따뜨렸을 때 반가움은 여타의 콘텐츠를 마주할 때와는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또한 원고지에 칸칸이 적힌 시문을 읽다보면 당시 작품을 쓰던 시인의 감성과 고뇌도 느껴진다. 네모난 칸을 메워가던 때의 숙결, 심상, 이미지, 상상의 세계도 그려진다. 문인들은 떠나고 없지만 작품이 남아 오늘의 시간을, 광주의 문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따가운 햇살 저만큼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어머니의 발으로 가고 싶다”(김남주의 ‘이 가을에 나는’ 중)

“땀발로 치닫는 흙의 입김/ 다가서면 잡힐 듯/ 달아나는 산천/ 하루아침 푸서릴 길에/ 숨은 돌부리/ 모퉁이 황토길”(윤삼하 시인의 ‘길’ 중)

“이 비 그치면/ 내 마을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겠다”(이수북 시인의 ‘봄비’ 중)

김남주의 ‘이 가을에 나는’은 가을 무렵 고추를 따는 어머니를 묘사한 시다. 고즈넉한 남도의 들

녘, 어머니로 대변되는 넉넉한 품이 그려진다. 불의한 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전사 시인’의 내면에 여리다 여린 감성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즈음에 떠올려볼 수 있는 시는 이수북 시인의 ‘봄비’다. 비가 그치면 강나루 언덕에 풀빛이 짙어 올 것이라는 화자의 심상을 남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봄날의 서경이 고전적 가락, 시정각 이미지와 어울려 발하는 슬픈 봄의 정서는 절창이다.

전시실에서 메인 영상은 새로운 볼거리이다. 문인들의 사진이 걸린 아늑한 서재를 비롯해 글을 쓰고 사유하는 듯한 모습이 비쳐진다. 배경의 화면은 누정에서 오늘의 광주로 이어지며 오랜 시간을 품은 풍경으로 바뀐다.

문장들은 빛처럼 흩어졌다 다시 모이며 시간의 결을 따라 새로운 이야기를 피워낸다. 문학의 가치는 원 텍스트를 구현해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게 하는 것일 터다.

체험 코너도 마련돼 있다. ‘문학 우체통’이 그것. 관람자가 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하면 그 마음을 떠올릴 수 있는 문장이 우체통을 통해 편지처럼 도착한다.

‘나만의 문학 책갈피 만들기’도 있다. 문학우체통에서 받은 글귀를 토대로 나만의 감성을 담아

책갈피를 꾸미는 것이다. 완성한 작품은 전시실 입구 외벽에 걸거나 집으로 가져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50년대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사옥 앞에서 광주 문인들이 포즈를 취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나의 연인 자작나무’

신선 초대전, 3월 14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겨울 눈 덮인 산자락, 군락을 이루고 있는 나무가 있다. 세상의 사소한 습속과는 거리를 둔 고결한 철학자의 이미지가 묻어난다. 바로 자작나무다. 은빛으로 빛나는 나무는 순수함과 고독의 분위기를 발한다.

신선 화가의 자작나무 그림들에선 특유의 외로움 외에도 신비로움과 탐미적 아름다움이 배어 나온다. 지난 1일 개막해 오는 3월 14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열리는 ‘나의 연인 자작나무’전.

전시실에 들어서면 다양한 색깔과 모습의 자작나무가 맞는다. 작가는 줄곧 동일한 주제로 자작나무 전시를 열어오고 있다. 그만큼 자작나무를 좋아하고 자작나무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는다는 방증일 게다.

회색과 흰색의 나무는 계절에 따라 주변의 환경과 보색의 대비를 이룬다. 초목이 짙은 봄철에는 생명력을, 강렬한 햇살이 들이치는 여름에는 열광

을, 낙엽이 붉게 물드는 가을날에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발한다.

빈센트 반 고흐, 클림트 등 서양의 화가들도 자작나무를 그렸다. 국작이나 배경을 떠나 자작나무는 많은 시인묵객들에게 영감을 주거나 그 자체가 탐미적 대상이었다.

신 작가의 작품은 작가가 상징하고 스스로 체현한 색깔과 구도가 투영돼 있다. ‘자작나무’를 모티브로 자신만의 ‘색의 시’를 쓰고 조형언어를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멜레온처럼 다채로운 색깔으로 변모한 자작나무는, 그러나 깊은 고뇌와 쓸쓸함을 내재하고 있는데 작가의 감정이입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전시실에서 만난 신 작가는 “자작나무 숲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보이는 강렬함과 때로는 차분하고도 부드러운 모습과 시시각각 변화되는 감정의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담아내고자 했다”며 “자작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한 존재이자 늘 다



‘자작나무’

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의 연인이다”고 했다.

한편 신선 작가는 호남대 문화예술경영학으로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 미술학과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개인전 16회와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국악’ 전통소리와 몸짓에 혼을 담다

전남도립국악단, 매주 토요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전통예술이 한 주의 리듬이 되는 무대가 다시 관객을 찾는다. 전통 소리와 춤, 연희가 어우러진 토요일 가무악의 ‘그린국악’이 새 시즌의 막을 올린다.

전남도립국악단(도립국악단)은 오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그린국악’ 시즌1을 선보인다.

이번 시즌의 주제는 ‘당신의 안녕을 그리다’. 일상 속 삶과 위로를 전통예술의 언어로 건네겠다는 취지다.

특히 올해는 도립국악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은 만큼 ‘일성일흔(一聲一魂)’, 즉 소리 하나에 혼을 담는다는 자세로 매 회차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

보인다. 단발성 공연이 아닌 ‘농치기 가까운 토요일’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2월 공연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천천히 감정을 깨우는 무대들로 채워진다. 국악 실내악 ‘눈사람’과 ‘겨울에게’를 비롯해 춤곡 ‘월하정인’, 가야금 병창 ‘고고천변’, 타악 앙상블 ‘타인공감’ 등이 이어진다. 몸과 마음의 온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다.

3월에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 보다 역동적인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태평무’와 가무악 ‘타무희’, 모듬북 합주곡 ‘SAY 타’ 등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함께 ‘임행어사 출두 대목’, ‘심봉사 눈뜨는 대목’, ‘기생점과 대목’ 등 판소리와 창극의 주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지난해 펼쳐진 ‘그린국악’의 한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요 장면을 엮은 작품들도 선보인다. 전통의 틀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관객과의 호흡을 넓힌다.

조용한 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소리 하나에 혼을 담아 예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일성일흔’

의 의미를 이번 시즌에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며 “그린국악이 전통예술의 가치를 오늘의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gma



지난해 국제교류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모습. (시립미술관 제공)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국의 파견작가 공모

광주시립미술관, 9~19일 접수
청년예술센터 예술인도 모집

지역 예술가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국제교류를 매개로 광주 미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올해도 진행된다.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 입주(파견) 및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 공모가 그것.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6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입주·파견) 및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을 공모를 한다.

국제레지던시는 총 4명으로 스튜디오 입주작가 2명(4월~27일 2월), 국외교류 기관(독일 뮌헨시 문화부 5월~6월, 대만 사유릉 컬처파크 7월~9월) 국가별 1명이다. 청년예술센터는 입주예술인(기획·연구자 포함 3월부터 27년 1월) 5명(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모 대상지는 국제레지던시 만 19세 이상, 청년예술센터는 만39세 이하로 광주지역 출신 및 지역 기반 활동 작가·예술인이어야 한다.

접수는 국제레지던시가 9일~19일이며, 청년예술센터는 7일~23일까지다(담당자 이메일 접수).

청년예술센터 입주예술인 최종 선정은 3월 5일, 국제레지던시 입주 및 대만 파견 최종 선정은 3월 6일 예정이다. 독일 파견 작가 최종 선정은 5월 중순에 결정될 예정이다.

응모자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등 상세 사항은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관객과 완성하는 무대

남도국악원 모니터링단 모집

공연을 바라보는 관객의 시선을 모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이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은 2026년 상설공연과 특별공연을 대상으로 활동할 ‘공연평가 모니터링단’을 공개 모집한다. 관람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모니터링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연간 3~5회 상설공연과 특별공연을 관람한 뒤 공연 운영과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국악원은 관객의 경험을 공연 제작과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만 15세 이상으로 전통공연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25~30명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9월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1시까지다. 신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를 제출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희망자에 한해 동행 1인 공연 우선 예약과 활동 확인서 발급도 지원된다. 공연 관람을 넘어 국악 공연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관객의 솔직한 목소리는 공연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공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